

#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와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Culture Experien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Acculturation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승희\*\*

Dept. of Health, Welfare, &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eunghee Kim

## 〈목 차〉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 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culture experien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ir own country, as well as their internalizing process of the educational culture in Korea,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married immigrant women solve the problem of acculturation based on their own educational and cultural experiences an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dealt with the problem of acculturation superficially. Participants were 17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eight countries who resided in Jeonnam and Jeonbuk provinces. They were selected by the sampling strategy of maximum vari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rchives and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within-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had no experience of attending private institutions and had good memories of their school life. Based on these kinds of experiences, they criticized Korean mothers who urged their children to attend private institutions. They respected their children's opinions and allowed their children to select private institutions. Despite married immigrant women apparently suffering from acculturation, they educate

\* 이 연구는 201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교신저자 : 김승희(seuhkim@gwangju.ac.k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ir own philosophy and method of education. That is, they solve the problem of acculturation actively and independently. Consequently, in order to help married immigrant women solve the problem of acculturation,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difference in the cultures and frame a system that develops the activity and subjectiv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married immigrant women), 교육문화(educational culture), 문화적응(acculturation),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 I. 문제제기

문화는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 습득된 지식으로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규제하고(Spradley & McCurdy, 1975 : 5),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를 포함하여 환경을 인지하는 방법 또는 세계관이다(Triandis, 1975). 조상식(2008)은 특정 시대의 교육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대 구성원들이 공유한 교육문화이며, 교육문화는 교육행동을 조건 짓는 원인인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말하였다. 특히 김중순(2010)은 학교교육이 우리의 문화 콤플렉스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받는 문화적 충격이 평생 동안 그 흔적을 남긴다고 주장하였다.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여 상징체계의 습득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중순(2010 : 314)은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문화가 개인의 인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개인의 상상력 발휘에 통제할 수 없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이 체험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할 때,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문화가 체험의 근원을 이루면서 개인의 상상력 발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특정 시대의 학교교육을 통해 구성원들

이 공유하는 교육문화는 그 시대 구성원들의 교육행동을 결정하면서 이후의 상상력 발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고국에서 경험한 학교교육에 근거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경험한 적이 없는 한국 교육문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국에서 형성된 교육문화를 원동력으로 발휘되는 상상력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교육문화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여러 어려움 중, 한국의 사교육 열풍에 의한 어려움을 많은 선행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김승희, 2011; 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오성배(2005)와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체득한 교육문화와 한국 교육문화와의 차이가 클수록 한국사회 적응이 더 어려우며, 한국어의 미숙함 정도가 심해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는 중국보다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교육을 더 어려워하고 있으며, 전경숙 외(2007)의 연구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출신의 부모를 둔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 더 뛰어나며, 부모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고국에서 받은 교육문화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서 받은 교육문화가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받은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한국 교육문화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를 탐색한 권미경(2007)의 연구조차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보다는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문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문제를 주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교육문화 적응형태의 근원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왜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국에서 받은 교육문화와 그것을 원동력으로 발휘되는 상상력에 대한 심층적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교육문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에 근거하여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를 논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자녀교육이라는 교육행동을 통해 한국의 교육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와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통해 경험한 교육문화를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체적으로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

문화가 원동력이 되어 어떻게 한국에서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한국 교육문화 적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문화

조용환(2011 : 14)은 교육을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지향하는 변증법적 해석/실천의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즉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행형으로서 교육을 정의하였다. 현재의 상태를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지으면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과정으로 교육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으로 교육을 정의할 때 교육현장의 참여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는 능동성과 주체성이다. Bruner(2005 : 108)는 주체적 행위에 대해 “행위의 시작일 뿐 아니라 행위를 완성하는 능력까지 함축하므로 기능이나 노하우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이 가정 생활 이후 가장 처음 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이러한 주체적 행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떠한 학교교육을 받았는가에 의해 개인의 주체적 행위의 발현 정도가 매우 다르며, 행위 동작의 주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된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은 사회 속 여러 제도들 간의 상호갈등을 해결하여 사회의 변증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Bruner, 2005 : 108). 개인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 속 여러 제도들에 속한 채

회로에락을 경험하며, 조절과 동화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사회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에게 능동적이고 주체적 자세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개인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준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이 문화이며, 이 속에는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체득하는 모든 것 - 의식주, 사고방식, 사랑, 종교, 놀이, 욕망, 언어, 의사소통방식, 자녀양육방식 등 - 이 포함된다(김중순, 2010 : 122). 사회 구성원 각자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환희, 희망과 좌절, 배신과 용서가 교차하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다(김중순, 2010 : 101). 따라서 특정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나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의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문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표현이라고 할 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행동과 연관된 문화가 교육문화이다. 조상식(2008)은 19세기 서구 시민계급의 교육문화가 현대 우리의 교육행동을 결정하는 기초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가문보다는 사랑이 결혼의 주요 모티브로 작용하게 되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기르게 되면서 가정이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고, 자녀교육이 증대한 의미를 획득하면서 특별한 생애시기로서 아동기가 간주되는 등 시민계급의 교육문화가 현대 교육행동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시민계급의 교육문화는 현재에도 핵심적인 교육행동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족의 미래를 확실히 조망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이 교육행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녀양육과 교육이 되었으며, “가정은 외부로부터 점차 폐쇄된 공간적 특성”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삶의 이상을 추구하는 장이 되었다

(조상식, 2008 : 251). 결국 자녀교육이라는 교육행동은 19세기 서구 시민계급의 교육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 시점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교육문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문화적응

김혜온(2012 : 87)은 문화적응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집단 혹은 개인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한 집단(개인) 또는 양 집단(개인) 모두의 고유의 문화적 양식이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적응은 직접적인 문화전파나 간접적인 문화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구조나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문화적응은 사회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체성이 심리적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체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의한 수동적 변화라기 보다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능동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혜온, 2012 : 91). 즉 환경에 의해 인간이 변화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환경이 변화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나 음악, 요리, 축제, 명절, 언어와 같은 것들 중 어떤 부분은 간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주한 나라에 전달하기도 한다(장미영, 2008). 또한 이주민들은 이주한 나라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자신이 이전 문화에서 습득한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한다. 결국 개인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

면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응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능동적 변화로 보았을 때, 층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개별 접촉이나 갑작스러운 사회 현상을 통하여 항상적으로 문화적응이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권효숙, 2011). 그러나 문화적응이 주류사회보다는 이주민 집단, 다수집단보다는 소수집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오면서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주민 집단이나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혜은, 2012 : 88). 한국사회 역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하는 등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김동희·하규수, 2011; 김중경·양영희, 2011; 김현숙·김희재·최송식, 2010; 박순용·오덕렬, 2012; 박주희·정진경, 2007; 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오성배, 2005; 은선경, 2010; 한진숙, 2011)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 집단이나 소수집단에게만 일방적으로 문화적응을 강요함으로써 주류사회 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문화중심주의로 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문화의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주민 집단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어 온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은 이주민 집단뿐만 아니라 주류사회도 당면한 과제이며, 이주민은 주류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주류사회는 이주민의 건강과 교육 등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혜은, 2012 : 105).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대 편차(Maximum variation) 표본

추출 전략을 이용한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와 연관된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례의 맥락이나 현장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에 의해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10).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를 사용한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를 탐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체험하는 교육문화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교육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전남과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7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단체들을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하는 5개 단체 책임자들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받았다.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례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최대 편차(Maximum variation) 표본추출 전략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연령, 한국 거주기간, 학력 등에 따른 다양성을 극대화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몽

콜,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총 8개국으로 다양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연령은 26세에서 44세(평균 31.9세), 한국 거주기간은 5년에서 14년(평균 7.1년)에 분포하였다. 모국에서의 최종학력은 고졸 10명, 고등학교 중퇴 1명, 대졸 4명, 대학 중퇴 1명, 전문대졸 1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자녀교육이라는 교육행동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즉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는 이미 한국 교육문화에 상당부분 적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인 적응하는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

문화가족과 관련된 단체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한국어 학습 기간을 가졌으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에 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자료수집

연구자는 Yin(2011)이 제시한 사례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 중 문서정보, 기록정보, 심층 면접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정보와 기록정보의 경우, 심층 면접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가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의 정확

<표 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출신 국가	생활 연령	한국 거주기간	최종학력	자녀 나이
A	베트남	29세	5년	고졸	5세, 4세
B	베트남	29세	9년	고등학교 중퇴	7세, 5세
C	베트남	28세	6년	고졸	6세, 4세
D	베트남	27세	5년	고졸	5세
E	베트남	27세	6년	고졸	6세
F	베트남	29세	6년	고졸	6세, 임신 6개월
G	필리핀	33세	9년	대졸	9세
H	필리핀	28세	5년	대졸	5세, 4세, 4개월
I	필리핀	38세	14년	대졸	13세
J	필리핀	28세	6년	대학 중퇴	6세, 3세
K	몽골	25세	5년	고졸	4세
L	일본	43세	15년	전문대졸	14세, 13세, 12세, 8세
M	중국(조선족)	43세	6년	고졸	5세
N	중국	26세	5년	고졸	4세
O	우즈베키스탄	35세	10년	대졸	9세, 5세
P	캄보디아	27세	5년	고졸	4세
Q	태국	43세	12년	고졸	11세, 6세

성을 높이는 데 문서정보와 기록정보가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의 다원화를 통한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는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이메일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전달하여 미리 답변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사무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면접 자료는 녹음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 바로 전사되었다. 연구자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체험한 교육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고국에서 학교생활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 고국의 교육문화와 한국 교육문화를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자신이 받은 교육문화와 한국의 교육문화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한국의 교육문화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Creswell(2010 : 339)이 제시한 나선형 분석과정 모형을 넘어서서 질적 사례연구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1차 코딩을 실시하고, 사례와 그 맥락

을 기술한 후, 주제나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 범주화된 집합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주제들을 찾기 위해 각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후 모든 사례에 공통적인 주제들을 식별하는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해석을 사용하여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전개하였으며, 이야기를 사용하여 사례들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사례연구에서의 분석은 사례나 현장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사례와 그 맥락에 대한 폭넓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료 분석의 결과를 “비평 체크리스트(Evaluation Checklist)”에 의해 평가하였다(Stake, 1995 : 131). 즉 연구자의 역할과 관점이 분명한지, 관찰과 해석이 다원화되었는지, 다양한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독자에게 대리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자료 분석 결과가 평가되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의 다원화를 통한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점검(Member checks)과 동료 검증(Peer examin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점검은 자료와 잠정적인 해석을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석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Merriam, 1998 : 204).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메일로 자료와 잠정적인 해석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한 후 연구 참여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석이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자료에서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료 검증은 잠정적인 결과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비평을 참조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동료 검증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여러 오류들을 수정하였다(Lincoln & Guba, 1985 :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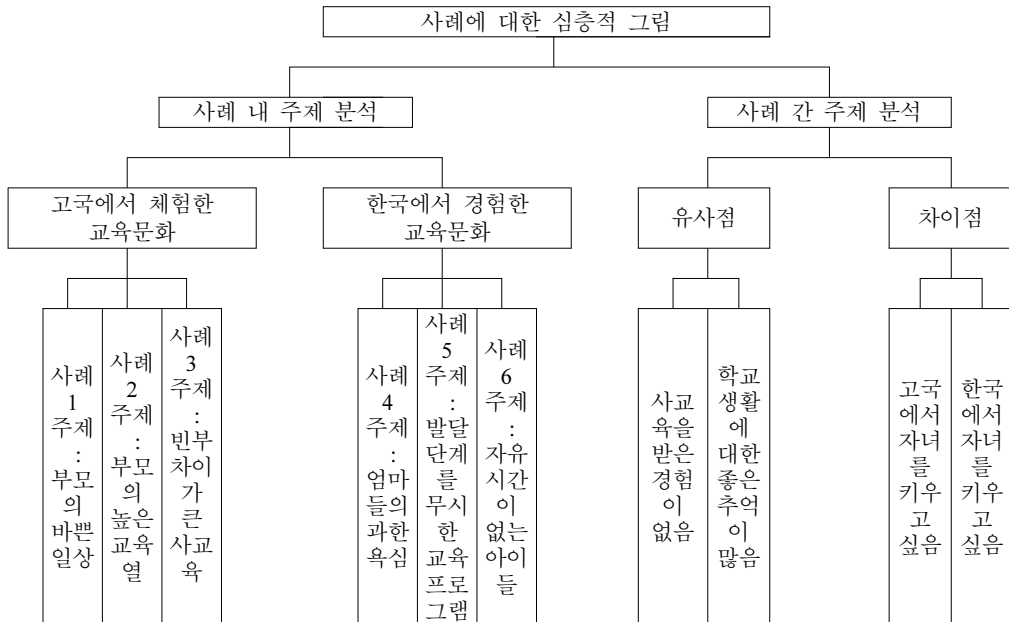
## IV. 연구 결과

연구자는 각 사례의 주제를 위한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여섯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에 포함되는 주제로 ‘부모의 바쁜 일상,’ ‘부모의 높은 교육열,’ ‘빈부 차이가 큰 사교육’ 등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문화에는 ‘엄마들의 과한 욕심,’ ‘발달단계를 무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자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는 주제를 탐색하였다. 사례 간 발견되는 유사점으로는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과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다’는 것이며, 차이점으로는 ‘고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것과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등 서로 대별되는 두 개의 주제가 발견되었다.

### 1.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

#### 사례 1 : 부모의 바쁜 일상

B씨는 29세로 베트남에서 온 지 9년 되었으며, 7살과 5살의 아이를 두고 있다.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어 있어 유아원과 유치원이 잘 발달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시골에서는 농사일로, 도시에서는 시장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더 활발하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베트남의 도시 생활은 한국처럼 매우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B씨 역시 엄마가 아빠보다 더 바빴으며, 아침을 먹으면 바로 어린이집을 갔다고 말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도시는 부모의 바쁜 일상 때문에 자녀교육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었으며, 시골의 경우 부모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B씨는 도시와 시골의 중간 형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태인 마을에서 성장하여 보통 한국의 가정처럼 부모로부터 베트남어를 배웠다. 한국과 다른 점으로 취학 연령의 유연성을 말하였는데, 보통 아이들이 7살에 입학하는데 반해 부모의 판단으로 잘하는 아이는 6살에 입학시킨다고 하였다. 베트남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한국과 유사한 12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B :** 보통 엄마들처럼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요. 가, 나, 다, 이렇게, 어린이집처럼 가르쳐요, 시골이면. 만약 도시면 엄마, 아빠 다 바쁘면 어린이 집에서 배우고, 똑같아요.

**B :** 아침에 밥 먹으면 바로 어린이집 보내요. 엄마들은 다 일 바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바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밖에서 돈 버는 것 더 많아요. 엄마들이 일하러 더 많이 나가요. 장사하든가 시장에서 일하잖아요. 여자들이 더 많이 나가요.

**B :** 여자들은 다 일 나가요. 집에는 애기 키우는 거 별로. 근데 시골은 할머니랑 있어도 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무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엄마들은 다 바빠요.

**사례 2 : 부모의 높은 교육열**

I씨는 38세로 14년 전에 필리핀에서 왔으며, 13살 된 아이를 하나 두고 있다. 필리핀의 학교는 초등학교 6년과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합친 형태인 고등학교 4년의 10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힘든 노동과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필리핀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부모의 교육열은 열성적으로 자녀의 숙제를 지도하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었는데, I씨도 학교가 과하면 항상 집에서 부모가 숙제를 봐주었다고 하였다. I씨는 방과 후 자유롭게 집에서 부모와 함께 숙제를 하면서 반복해서 읽기와 쓰기를 연습하였기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학원에서 대

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I씨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유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성적이 나쁘면 학년 진급이 되지 않음에도 I씨는 필리핀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한국 아이들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였다. 필리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허락하는 한 대학을 다 보내려는 분위기라고 I씨는 말하였다.

**I :** 엄마들이 도와줘요, 숙제 같은 경우.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잖아요. 여기는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러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애들한테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에서 교육받는 것이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집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숙제를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아니면 뭐 이모가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애들이 학원에서 살아요. 저녁에 늦게 오고. 힘들어, 힘들어. 지금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사례 3 : 빈부 차이가 큰 사교육**

Q씨는 43세로 태국에서 온 지 12년 되었으며, 11살과 6살의 두 아이를 두고 있다. Q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방콕에서 화장품 파는 일을 하다가 통일교를 믿게 되었고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Q씨는 태국의 교육에 대해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가령 도시에는 다양한 학원이 많은 반면 시골에는 학원이 없어 다닌 적이 없다고 하였다. 즉 노래 부르기나 농구와 같은 예체능 과목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이며, 방과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고 말하였다. 특히 태국은 방콕의 중앙집권화가 심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가 방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1950년 말까지는 대학이 방콕에만 존재하였으며, 현재도 방콕은 다종다양한 예체능 학원이 즐비한 반면 다른 지역은 그러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집중화현상에 대해 Q씨는 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만 학원을 다니지만 한국은 모두 다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돈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할 수 있는 등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육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Q : 나는 학원은 안 다녔어요. 돈 없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은 안 다녀요.

Q : 도시는 많이 있는데 시골은 없어요. 그냥 일반 학교 다녀요. 돈 많은 사람들, 방콕 사람들은 많이 학원에 있어요. 영어 많이 배우고, 이렇게 무용,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없는데 지금은 태권도 있어요. 태권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 2.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문화

### 사례 4 : 엄마들의 과한 욕심

L씨는 일본에서 온 43세 주부로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으며, 14살, 13살, 12살, 8살의 네 아이를 두고 있다. L씨는 일본에서 받았던 교육과 한국 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한국 엄마들의 과한 욕심을 지적하였다. 자녀에게 이것도 시켜야 된다. 저것도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한국 엄마들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임에도 하루에 몇 가지씩 다니고 있음을 문제시하였다. 엄마의 욕심 때문에 L씨에게 일본어를 배웠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경우에도 싫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배웠다고 하였다. 현재 가르치는 아이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면서 힘든 상황임에도 일주일에 두 번은 해

이지 잘할 수 있다는 엄마의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일본어를 재미있어하기에 가르치고는 있으나 L씨는 엄마의 과한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네 아이들은 모두 아동복지센터에서 학습지를 하는 정도이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L씨는 남이 보내니까 나도 보낸다는 식으로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한국 엄마들의 욕심을 질타하였다.

L : 차이? 한국은 다 똑같은데 너무나 공부를 시켜요. 여기 애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피아노 다니고 영어 다니고 뭐 다니고 몇 가지씩 다니잖아요. 그런 애들,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일본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친 애들 있어요. 그래서 가르쳤는데 진짜 짜증 나 죽겠어요. 엄마, 학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소리해요. 그래도 다녀야 되잖아요. 좀 불쌍해요. 그 집은 아들 하나니까 여러 가지 시키니 어떻게 보면 부럽긴 한데, 우리 집은 아무 것도 안 시키니까.

L : 내가 일본어 가르치는 애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일본어 한다고 할 때, ‘네가 진짜 일본어 하고 싶어서 하나?’ ‘네, 진짜 그래, 네.’ 그래서 가르치는데. 엄마가 어떤 거 제일 재미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본어 재미있다고 그런대요.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해야 잘하겠다고 해서 엄마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자고 그래요. 그때도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두 번 하고 싶어서 하나? 학원 두 개씩 다니고 힘들겠다. 진짜 하나?’ ‘네, 해요, 일본어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데. 다른 학원은 되게 힘들어 해요. 엄마들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시켜야 되죠, 그것도 시켜야 되죠, 그런 소리 하시니까.

### 사례 5 : 발달단계를 무시한 교육프로그램

O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으며, 한국에 온 지 10년차로 9살과 5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초

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공부를 일부터 시키지 않고 있다는 O씨는 한국 엄마들이 아이에게 부담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며, 아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아직 정보를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해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O씨의 경우, 성인이 된 후 필요에 의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집중적으로 읽기와 듣기를 한 결과 1년 안에 다 배웠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 엄마들의 극성스러운 조기 영어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O씨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 저도 인제 우리 아들이 2학년인데 공부 많이 안 다녀요, 일부터, 조금 딸리지만, 지금. 조금만 같이 앉아서 하면은 빨리, 빨리 잘해요. 굳이 부담을 주면서 쉬는 시간 없이 공부시키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잘 커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으면은 스트레스 많잖아요, 애들도. 애들이 자기세상이 있어야지, 그래야 얘가지. 크면은 충분히 공부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O : 우리 아들 제가 영어 조금 시켰거든요. 정말 진짜 못해요. 신기하게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생각해서, 애들이 힘들어요. 이것도 지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머리가 조금 커지고 하면 그때 이것저것 다 배우면 금방 해요. 1년 안에 내 친구는 문법을 다 알고 2년 배우다 보니깐 말까지 잘하더라구요.

#### 사례 6 : 자유 시간이 없는 아이들

N씨는 중국에서 온 지 5년 되었으며, 26세로

4살 된 아이를 두고 있다. N씨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중국의 교육여건이 매우 안 좋아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한다. N씨 역시 생활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였으며, 한국에서 교육비가 지원되어 자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이 여러 학원을 전전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워 하였다. 아이들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부모의 욕구에 의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배웠을 때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모는 우선적으로 아이의 취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N : 학교 끝나고 태권도랑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애들 쉬는 시간 없어. 쉬는 시간 진짜 없어요. 얼마 전에 다른 한국사람 봤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태권도 가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그래서 애기가 놀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거,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애기가 머리가 조금 아픈 거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N : 좋아하는 했었는데, 조금씩 애기들 좀 자유 있으면 좋겠어. 다른 집 애들도 엄마마다 다르잖아요. 엄청 많아, 애들 공부하는 거. 애들 취미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 엄마, 아빠들 생각이 없어. 자기만 나는 엄마다 너는 이거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

### 3. 사례 간 유사점

#### 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

17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유사점은 L씨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이 고국에서 사교육

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L씨의 경우, 일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교육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는 서예와 주산 학원을, 중학교 때는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녔으나 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성적이 떨어져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원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L씨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학원이 없는 시골에서 성장했거나 도시에 살았더라도 비싼 학원비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A씨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였다. 취업을 위해 영어가 필수인 분위기 속에서 돈 있는 부모는 다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경우, 도시와 시골의 교육 인프라 차이가 매우 컸으며 학원은 돈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A : 학원은 주로 수학, 영어. 특히 영어를 많이 다녀요. 영어를 많이 하고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부모는 다 보내요.

A : 그렇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많이 왔잖아요. 거기 땅도 사고 그 뭐지 공장이랑 아니면 회사 그런 거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많이 써요. 거기 사는 지역은 프랑스, 그리고 영국, 미국 여행 많이 와요. 근데 영어 말 7살, 6살짜리도 영어 배우고 그냥 말 잘해요. 진짜 말 잘해요. 외국인이라 장사하잖아요. 조그만 애들도 이것저것 파니까 외국사람 만나면 영어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호텔 들어가도 영어를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직장 갖고 싶으면 영어도 알고 그러면 쉽게 들어가잖아요.

A : 가격이요? 비싸요. 비싸요. 있는 집만 보내는 거죠. 없는 집은 못 보내지요.

고국에서 사교육 경험 부재는 한국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한국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고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사교육의 기회를 한국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비싼 학원비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서는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것이 한국에서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주로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학원을 보내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E씨는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으며, F씨의 경우에도 아이의 공부가 뒤처지는 것 같아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고 학원을 보낸 후 공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습량의 과다를 지적하면서도 고국에서 경험한 사교육으로부터의 소외감을 한국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나.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음**

두 번째 유사점은 17개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고국의 학창시절에 대하여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국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고 자유로이 학교를 다녔던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생활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주저 없이 말하였다. 한국과 다르게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점심 때 집에 와서 식사를 한 후 다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과 후에는 집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형제, 자매,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일상사였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음악과 체육시간을 언급하였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보냈던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고국에서 즐거웠던 학교생활은 공부에 대한 강요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국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음악과 체육시간에 대한 좋은 추억은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교육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H씨는 필리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악기 다루는 법과 다종다양한 스포츠를 배웠으며,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중학교 때보다 오히려 좋았다고 말하였다. 몽골에서 온 K씨의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음악과 체육시간이 가장 좋았으며, 춤을 잘 춰서 학교 대표로 선발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베트남에서 온 C씨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춤과 노래를 배웠던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특히 예체능 시간에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L씨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줄넘기와 철봉 등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교육이 철저히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L씨는 기초체력의 연마 없이 배드민턴이나 축구와 같이 놀이 식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체육시간에 대해 심하게 질타하면서 제대로 된 체육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L : 체육 시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옷 입고 그냥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체육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체육복 입고 일주일에 세 번 제대로 했었으니까. 체력도 있어야 공부도 하는데 제대로 체육을 가르쳐 주

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철봉 할 수 있어요, 마흔 넘었는데도. 근데 셋째 아이 친구한테 시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해요, 여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운동 안하니까.

L :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해오, 줄넘기랑 철봉이랑. 근데 우리 아들들은 줄넘기도 제대로 한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야 제대로 했었는데 그때까지 못했어요. 여기 팔 힘도 하나 없고 진짜 그거 문제구나. 애들이 못 걸어 다니잖아요. 특히 우리 애들도 시골에서 사니까 차타고 학교 가고 차타고 오고. 그냥 축구하고 아, 재미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봉하고 빙글빙글 돌고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4. 사례 간 차이점

##### 가. 고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음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고국의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강조하고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도 어디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고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그룹은 총 17명 중 7명으로, 한국에서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학교와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어 하는 것이 안타까워 차라리 고국에서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었다. 또한 아이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에 비해 진정 밀도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워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학원 공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자 자신의 미숙한 한국어 때문에 제대로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없어서 고국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자녀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기 보다는 고국에 보내는 것이 자녀를 위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G : 여기는 10시, 11시까지 고등학생 애들이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잖아요. 봐봐요, 학교 숙제, 학원 숙제, 학습지 숙제, 애들이 머리 터지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 2명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콘데,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엔데, 아빠가 그냥 필리핀 보냈어요.

G : 내 생각에는 애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애는 중학교 가면 그냥 필리핀 보낼 거예요. 나도 사실 욕심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B : 그렇게 한 번씩 어려우면, 힘들면 그래요. 가끔씩 드는데, 베트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말은 다 안 나오니까 생각만 드는 거죠. 말은 딱 막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말은 안 되니까 답답하죠.

#### 나.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음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국보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룹은 총 17명 중 10명으로, 한국에서 자녀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원을 이용하는 등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의 욕심으로 원하지 않는 학원을 다니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 교육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국보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가 고국에서 취득한 학위보다 더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녀가 졸업 후 고국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공부는 한국에서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려는 것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겠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자녀가 고국에서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겠다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N : 저는 그냥 얘기 좀 커서, 저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말 먼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배우고 좀 얘기 더 커서, 더 커지면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그래서 얘기하고 나는 또 알아 봐야 돼요. 애기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좋아하면 해요. 자기만 취미 있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애기가 더 열심히 배우잖아요.

K : 한국이 더 좋죠. 너무 많이 시키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더 좋아요. 여기서 공부 잘 시키고 나중에 몽골 가서 뭐 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잘 배우고 나중에 몽골말 배워도 돼요.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체험한 교육문화와 그들이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교육문화 적응에만 초점을 두었던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에서 출발하여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교육문화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지나친 교육열에 의한 사교육 부담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교육 부

담 때문에 힘들어 함에도 본인들이 고국에서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느꼈던 소외감을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통해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교육문화 적응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를 원동력으로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는 사례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과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교육 경험 부재는 가정과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는 것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로 연결되고 있다. 주로 방과 후 가정에서 형제, 자매와 어울리고 부모가 숙제를 봐 주는 등 공부에 대한 강요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유로웠던 유년기 경험은 여러 학원을 전전하면서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한국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에 근거하여 볼 때, 아이들은 마땅히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로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아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국과 다르게 누구나 쉽게 학원을 보낼 수 있는 등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한국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지는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은 사교육이 활발하지 않음으로써 학교교

육을 통해 다양한 예체능활동이 이루어졌던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 중 가장 좋았던 것으로 음악과 체육 시간을 언급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입시 위주로 제한된 과목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 다르게 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즐거웠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학교교육의 중요성 강조와 동시에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사교육에 떠넘기는 한국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L씨의 경우, 일본에서 체육교육을 충실히 받은 결과 지금까지 강한 체력이 유지됨을 강조하면서 한국 학교교육에서 기초체력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은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와도 연결되었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와 잦은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교육문화 적응에 관해서는 자신의 관점으로 한국 교육문화를 지지하고 해석하면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해 엄마들의 과한 욕심과 발달 단계를 무시한 교육프로그램, 아이들의 자유 시간이 없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학원을 보내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조기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있었다. 공부를 강요하기보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I씨는 아이들이 학원에서만 공부를 할 뿐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O씨 역시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만 할 뿐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관점으로 한국 교육문화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식으로 한국 교육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동화와 통합의 문제로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박주희·정진경, 2007; 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과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생활방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모국의 생활방식을 고집하는지, 한국식을 취한다면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것을 거부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동화로 볼 것인지 통합으로 볼 것인지 등 기존 연구들은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박주희·정진경(2007)의 연구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적 방식을 선호하거나 한국식과 모국식을 적절히 혼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하였다. 양옥경 외(2007)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 유지 여부에 의해 문화적응 유형을 동화와 통합으로 나누고 있다. 한 마디로 기존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의식, 고민, 갈등, 판단 등을 간과한 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문제의식 저변에 놓여있는 그들의 의지와 신념까지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교육이라는 교육행동을 통해 한국의 교육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에 근거한 자신의 방식으로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

지 않으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원을 선택하고, 아이에게 최대한의 자유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에게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한국 교육문화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를 통해 형성된 세계관과 교육철학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김중순(2010)이 지적하였듯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받은 문화적 충격이 오랫동안 간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고국에서의 교육생애사를 통해 형성된 학교교육에 대한 철학이 자녀교육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 박순용과 오덕렬(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열풍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교육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김승희, 2011; 오성배, 2005; 조영달, 2006)의 결과와 다르게 여성결혼이민자는 오랜 시간의 고민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효과적인 자녀교육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정책과 교육풍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교육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한국 교육문화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교육문화 적응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습득했던 모든 것들 - 의식주, 언어, 의사소통방식, 자녀양육방식 등 - 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응의 심리적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체성과 연관된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존중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조



절하고 집행하여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순희 외(2010)가 지적하듯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동화주의에 근거한 다문화정책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정체성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강요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였고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무시당하고 차별받음으로써 자아가 위축되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과 환경의 능동적 변화를 통해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적응은 이제 더 이상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 접촉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항상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방식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고유의 문화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적하는 한국 교육문화의 문제점들을 검혀히 받아들이고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분량으로 인해 각각의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기술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최초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고국에서 체험한 교육문화에 근거하여 한국 교육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표면적으로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의 한계

를 극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권미경(2007).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2) 권순희 외(2010).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 3) 권효숙(2011). 다문화교육의 지형 : 질적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강현출판사.
- 4) 김동희·하규수(2011).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과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187-201.
- 5) 김승희(2011).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33.
- 6) 김종경·양영희(2011).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처기전. 성인간호학회지, 23(1), 50-59.
- 7) 김종순(2010).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소통.
- 8) 김현숙·김희재·최송식(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6.
- 9) 김혜운(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 10) 박순용·오덕렬(2012). 취학연령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문화 적응 연구 : 필리핀인 및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1), 177-197.
- 11)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4), 395-432.
- 12) 양옥경·김연수·이방현(2007). 서울거주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13)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2-83.
  - 14)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15) 장미영(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학, 64, 355-379.
  - 16)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 다문화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17) 조상식(2008). 19세기 서구 시민계급의 교육 문화 형성과정 : 가족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2), 237-256.
  - 18)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19) 조용환(2011).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14(3), 1-29.
  - 20) 한진숙(20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문화 적응.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1), 5027-5033.
  - 21) Bruner, J.(2005). 교육의 문화(강현석·이자현 역). 교육과학사. (원저 1996 출간).
  - 22) Creswell, J. W.(2010).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학지사. (원저 2007 출간).
  - 23)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24)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Publishers.
  - 25) Spradley, J. P. & McCurdy, D. W.(1975). Anthropology : The 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26) Stake, R.(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27) Triandis, H. C.(1975). Cultural training, cognitive complexity and interpersonal attitudes. In R. W. Brislin, S. Bachner, & W. J. Lonner(Eds.), Cross Cultural Perspectives on Learning(pp. 39-78). New York : John Wiley & Sons.
  - 28) Yin, R. K.(2011). 사례연구방법(신경식·서아영 역). 한경사. (원저 2009 출간)

- 투 고 일 : 2012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2일